

# 市街地形成과 都市設計 및 建築計劃

尹 定 燮

## 序言

그나라의 国力과 文化는 都市에 의하여 代辯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都市를 形成하는 施設物중 특히 建築物이 차지하는 比重은 莫重한 바가 있으며 이 모든 建築物은 모두가 우리들 建築家의 손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의 国力과 文化를 左右하는 市街地形成의 先着要素를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建築家인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 우리는 새삼 責任이 重且大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연 이와 같은 使命感을 認識하고 우리가 다루는 作品을 根本的 本質問題로부터 糾明하고, 多角的으로 檢討하여 왔던가? 혹시 여러가지 輿件과 時間에 쫓기여 옳다고 自己가 믿는 案을 貫徹하지 못하고 끝내 妥協的인 最終案에 만족해 버리지는 않았던가? 또는 손쉬운 在來의 慣習에 따라 何等 새로운 것도 없고 改善된 바도 없는 방식에 의하여 作品이 處理되지는 않았던가?

이 모두를 우리 다함께 深思熟考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摸索해 보고져 하는 데 本文을 쓰는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文은 우리들이 成就할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途程인 것이다.

다음에 展開하는 本文의 內容을 몇 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다루어 보고져 한다.

첫째, 都市設計와 建築計劃의 側面.

둘째, 環境的인 側面.

셋째, 都市生態學을 포함한 社會學的 側面.

넷째, 經濟學的인 側面.

## 1. 都市設計와 建築計劃의 側面

建築計劃에는 3大要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周知하는 바이다. 즉 機能, 構造, 美의 3大要素가 充足 되어야만 建築物로서 完璧한 作品이 制作된다는 말이다.

오늘날 機能이 먼저냐, 形態가 먼저냐 하는 論議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決定的 斷案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다만 現代建築 初期에 Le Corbusier 에 의해서 主張된 機能至上主義는 상당한 修正을 받고 있으며

筆者: (서울대工大 建築學科)

Mies Van der Rohe의 禁慾主義的인 構造合理主義도 많은 挑戰을 받고 있다. 물론 機能이나 構造는 建築成立의 源泉的 要素인만큼 이들을 잘 解決해야 함은 물론이나, 建築物이 藝術作品인 이상 좀더 藝術로서의 建築의 側面과, 또 藝術중에서도 社會藝術이 建築이만큼 社會的 要求, 經濟的 要因에 따르는 人間生態的 側面을 表現하는 建築物, 또 各國마다의 地域特性을 加味한 建築物들이 더욱 摸索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從前의 個個의 建築物보다는 群으로서의 建築이나 모든 環境의 程度가 커지는데 따라 여기에 맞는 巨型建築 (Mega structure) 이 云謂되게 되었다.

우리가 形成해놓은 市街地를 바라 볼때 과연 建築의 3大要素인 機能, 構造, 美등의 基準을 어느 程度로 만족시킬수 있는 建築物을 構築해 놓았는가를 스스로 自省해보자.

하나하나의 建築物이 비록 이와같은 세가지 要素를 最大限으로 充足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構成하는 群으로서의 建築物은 과연 어떻게 調和있게 形成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크나큰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計劃이나 設計는 언제나 큰 것으로 부터 分析, 構成하여 점차 個個의 建築物로의 計劃과 設計로 範圍를 좁혀들어 가는 것이 原則이다. 이런 까닭에 마스터·프랜이 필요한 것이며 群으로서의 建築에 대한 都市設計的인 側面이 強調되는 緣由가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 建築法에서도 改正後에 特定街区整備地區의 規定을 新設한 것도 이같은 原則을 認定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물론 特定街区整備地區의 指定에도 많은 問題點이 없지는 않다.

우리나라 建築法을 보면 特定街区整備地區내의 建築制限에서 位置, 環境, 기타 特性에 따른 都市機能 및 美觀을 고려하여 當該土地의 利用을 最大限으로 도모할 것으로 規定해 놓았는데, 이는 當該地區에 指定된 都市計劃에 맞추어 建築物의 用途, 容積, 높이 및 建蔽率등을 정하고, 都市設計的인 側面에서 道路計劃, 建築物 配置計劃, 外部空間構成, 建物 상호간의 配列, 하늘을 背景으로 하는 建物群의 스카이·라인의 形成, 建物外觀의 形成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土地利用을 最大限으로 할 수 있는 容積을 갖도록 建物構成을 하라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와같은 地区全体에 대한 建築計劃은 市長, 郡守가 作成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도 各筆地마다의 地主들의 意志를 어느 정도 反映할 것인가 하는 問題와 建築物의 容積을 정하되, 그만한 建物を 建築할 能力을 地主가 갖추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對策과 이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地区에 대한 建築計劃이 과연 都市計劃이나 設計面에서 보아, 最善의 것이냐 하는 價值判斷의 基準을 정하는 問題가 있다 할 것이다.

여하튼 이같은 側面에서 市街地形成을 檢討하기 시작한 것은 多幸한 일이며, 進一步의 發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나와 우리들 建築家は 都市形成의 가장 앞선 專門家들이며 모든 都市內 建築物들은 우리의 손을 거쳐서 세워지고 있다. 우리는 個個의 建築物이 最善의 作品이 되도록 注力함과 아울러 이들 建築物群으로 形成되는 市街地도 最善의 것이 되도록 注力하는데 우리의 努力을 기우려야 될 줄로 믿는다.

## 2. 環境的인 側面

최근에 公害問題가 많이 云謂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公害라 하면 大氣汚染, 水質汚染, 騒音 및 振動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問題는 이같은 公害의 定義에서 내려지는 内容보다도 오히려 人間이 生物學的인 見地에서 필요로 하는 日照, 通風, 採光, 展望등과 大氣汚染, 騒音등을 포함하여 環境全般的인 側面에서 問題點을 提示하고 이들을 都市設計나 建築計劃의 側面에서 그 解決方案을 摸索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問題解決은 특히 市街地中에서도 住居地域에서 진지하게 다루워져야 할 것이다. 물론 商業地域이나 工業地域에서도 이런 問題가 輕視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나 그 重要度가 덜 하다는 데 불과하다.

日照는 太陽光線의 紫外線이 갖고 있는 殺菌作用등의 人体에 有益한 醫療效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赤外線이 갖고 있는 熱效果는 특히 冬節에 있어 室內 氣溫을 높이는 데 크나큰 役割을 하게 되며 특히 小住宅에서는 이와같은 太陽熱에 의한 自然暖房의 依存度는 극히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日照時間問題는 各建物配置에서 극히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都市內 市街地中 住居地域에 있어서는 이같은 問題가 各國마다 建築法등에 規定될 정도로 重視되고 있는 것이다. 冬至때 최소 日照時間 4시간, 혹은 6시간등의 基準은 集團住宅地計劃 즉, 團地計劃등에서 理論적으로 받아 들여져 있으며, 우리나라 建築法上으로는 隣棟距離에 의한 높이 制限

으로서 同一垵地內에서 共同住宅, 寄宿舍, 病院 기타 이와 유사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의 主方向 前面에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物로부터 新築하는 建築物의 높이만큼을 떠어서 建築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즉, 前面 建築物의 높이만큼 떠어서 기존 建築物이 位置하도록 한 것이다.

英國의 公營住宅法에서는 水平距離 즉, 隣棟間隔과 建築物의 높이가 이루는 角度가 18도를 넘지 못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여기서 計劃原論的인 日照問題의 理論을 數衍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市街地形成에 있어서 日照를 고려한 建物群의 配置가 要望된다는 것을 強調할 따름이다.

商業地域에서는 먼저 말한 程度의 日照問題는 대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商業地域內의 建築物 역시 사람이 長時間 근무하는 室內空間인 만큼, 日照問題를 전혀 무시한다는 것은 不當하다. 이같은 點에서 우리나라 建築法에도 4層以上の 建築物은 그 높이에 따라 建築物의 모든 部分으로부터 垵地境界線까지 一定距離이상을 확보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 規定은 日照問題에 중점을 둔 것보다는 建築物의 接續으로 인한 都市美觀沮害의 防止와 火災延燒의 防止등을 主眼點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日照라는 見地에서는 이 이상의 距離確保가 요망된다.

다음, 通風問題는 특히 夏節의 季節風과 관련하여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겨울의 朔風은 오히려 피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夏節의 風向이 문제가 되며, 또 이러한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市街地內의 建築物이 配置될 것과 各建物마다의 開口部의 크기가 논의되어야 하고 아울러 建物の 형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前面에 댄 建물이 있을 경우 뒷建물이 前面建물을 넘어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條件은 前面建築物의 높이의 2배 이상의 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自然스러운 微風이 아니라, 앞의 建物위를 넘어서 갑자기 뒷建물을 치는 돌발적인 바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앞에 障礙物이 없는 建物配置가 바람직 하다. 그렇다고 建物앞에 무제한 開放되어 있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적정한 隣棟距離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建물이 主風向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主風向에 대하여 直角方向으로 놓인 建物配置가 가장 이상적이며, 이럴때는 建物內 換氣도 가장 잘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主風向과 平行으로 建물이 놓였을 경우에는 建物の 끝벽에 바람이 마주 치는 까닭에 室內換氣는 全無狀態라 할 것이며 가장 最惡의 配置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建物の 配置나 形態가 主風向에 直角方向으로만 놓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오직 風向에 대해서만 建物の 配置를 決定할 수도 없는 것이 實情이다. 또 이뿐 아니라 겨울의 寒風은 가능한한 받지 않도록 配

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結論은 겨울의 찬바람은 받지 않고 여름의 微風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建物の 形態와 配置를 찾아 내야 할 것이다.

다음 建物の 開口部の 크기는 그 建物에 와 닿는 風速을 감소시키지 않고 받아 드릴 수 있는 開放形式이 되어야겠고, 우리나라 建築法에서는 居室 바닥面積의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開口部面積을 規定하고 있으나 이것은 機械換氣裝置를 고려한 것이며, 실제로는 그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換氣란 여름의 通風에 의한 熱減少를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室内에 거주하는 사람의 生理的 換氣量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採光面에서 볼 때 建物配置나 建物の 外部窓의 規模는 어찌 될 것인가, 晝光 照明은 直射日光과 天空光 으로서 이루어진다. 天空光은 구름이나 서리등으로서 直射日光이 遮斷된 光線이므로 그 根本은 역시 直射日光이라 할 것이다. 여하튼 直射日光이던 天空光이든간에 室内照度の 所要量만큼의 晝間照明이 가능하도록 建物配置나 室의 開口部가 決定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建築法에 의하면 居室바닥面積에 대한 有効採光面積의 比率로서 學校教室1/5 이상, 기타의居室1/7이상의 바닥面積과의 比率를 規定하였고, 採光上 有効한 面積의 算定方法으로서 各地域別로 나누어 地境界線 또는 隣地建築物部分과의 距離와 建築物의 높이와의 比率에 따라 有効部分을 算定토록 規定하고 있다. 日照에 의한 隣棟距離가 定해졌을 경우 採光에 의한 條件은 滿足되는 것이며 다만 有効採光面積의 比率만을 檢討하면 될 것이다.

展望에 대해서는 이런 環境要素가 直接 우리 人体에 미치는 生物學的 影響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住居地域 등에서 住宅의 展望이 云謂되는 까닭은 人間이 大部分의 時間을 보내는 住宅의 居室, 食堂 혹은 書齋 등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來日의 活動을 위한 休養을 취하는 데 있어 多분히 心理的으로 作用하는 要素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日照나 通風問題 등의 解決이 未洽하다 하더라도 展望이 가장 좋게끔 建물이 配置되고 계획되어 있다 하면, 오히려 後者를 택하는 것이 外國建築家 들의 하나의 計劃基準이 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이 問題는 環境心理學的의 바탕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物理的 側面에서 볼 때는 各建物の 특히 居室에서의 視角을 分析하고 좋은 景觀에 향하여 居室이 配置되도록 住宅이나 아파트 등의 平面計劃이 要求되는 것이며, 가능하면 기타 用途의 방도 같은 展望을 갖도록 함이 요망된다.

비단 住居用 建物뿐이 아니라 商業用 建物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좋은 展望을 가진 事務室에서 執務를 한다면 그만큼 事務能率의 向上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高層빌딩의 경우 이 問題는 구태여 擧論되지 않을 지도 모

르나 展望에 대한 考慮도 分析되었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公害의 定義중의 하나인 大氣汚染은 各체로 工場의 排氣에 의한 煤煙, 各建物の 보일러에서 排出되는 煤煙 및 自動車에서 나오는 排氣가스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번째 工場의 煤煙은 都市計劃상으로도 各地域의 立地條件에서 工業地域이 住居地域등의 風上에 오지 않도록 한다거나, 부득이 이 原則이 깨질 때는 그 중간에 隔離綠地帶를 낸다거나 하는 方法을 쓰고 있거니와 이것은 특히 夏節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왜냐하면 冬節에는 住宅들이 窓을 密閉해 놓기 때문이다. 이같은 方法으로는 煤煙이 심한 工場, 예컨대 火力發電所 등에는 工場자체에 集塵機등을 設置하여 그 자체로서 최대로 處理하는 것도 하나의 對策이다.

두번째 各建物の 보일러에 의한 排氣는 使用하는 燃料과 관계되는 問題로서 炭類를 使用하는 各事業소가 줄어 가서 전보다는 改善되었다 하더라도 完全燃燒되는 油類란 있을 수 없으니 아직도 未決의 章으로 남을 問題이며, 다만 綠地帶등을 빌딩사이에 충분히 확보하여 吸收시키는 方法을 摸索해야 하겠다.

세째 自動車 排氣가스에 대하여는 Co 가스를 비롯한 各種 有害가스가 排出되고 있으며 특히 道路의 縱斷勾配가 심한 곳에는 排氣量은 급증한다. Co가스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自動車에서 排出된다. 그러나 이 問題는 都市設計나 建築에서 그 解決에 이바지할 수 있는 分散主義的 計劃과 綠地帶등의 適正配置외에는 根本的 對策은 機械工業과 自動車工業에서 期待되고 있다.

넷째로 騒音에 대한 對策이다. 近代都市에서 다수인이 직접 實感하는 것은 都市騒音, 工場騒音등이다. 서울시의 騒音調査결과를 보면 交通騒音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自動車에 대한 騒音規制이다. 늘어나는 都市內 交通量으로 볼 때 都市人은 騒音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都市計劃의인 것으로 住宅地내에 工場新築의 不許, 住宅地내에 있는 工場等 産業物의 工業地域으로의 移轉 促進, 道路擴張과 舗裝, 防音壁 裝置의 施工과 建築自体로서는 2중窓의 設置, 창틀사이의 遮音코킹 充填 등의 方法을 講究할 수 있고, 都市計劃에서는 安靜地區의 指定과 더불어 騒音 發生器具의 地域的, 時間的 抑制基準의 規制를 할 수 있다. 騒音源에 대한 여러 가지 制限規制도 여기에 따라서 制定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市街地形形成에서 고려되어야 할 環境的 側面을 考察하였거니와 日照, 通風, 採光, 展望 등의 要素는 都市設計나 建築的인 計劃에서 충분히 解決될 수 있는 것임을 알았고, 大氣汚染이나 騒音등의 公害的 要素는 都市設計나 建築만으로는 解決되지 않고, 그 發生源 자체에 대

한 物理的 혹은 化學的 對策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3. 都市生態學을 포함한 社會學的 側面

우리는 같은 市街地내에서 바로 道路를 사이에 놓고 서로 隣接한 地區인데도 한쪽은 상당히 開發되어 새 建物들이 들어 차 있는데 반하여 또 한쪽은 아직도 開發되지 않은 채 放置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여기에는 都市設計나 建築計劃 등의 物理的 手段만으로는 解決되지 않는 어떤 原因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地區에 作用하는 社會的 要因, 經濟的 要因, 혹은 市民의 利害關係의 要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社會學, 都市生態學, 土地經濟學 또는 保健學 등 여러 學問分野에 걸친 이들 問題를 詳論코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들 要因이 어떻게 市街地形成에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都市計劃家나 建築家인 우리들이 이 問題를 올바르게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려는 데 불과하다.

먼저 社會學的 要因을 알아 본다.

市民의 社會的 行態는 都市 市街地 패턴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들의 集團行動에서 人間價値와 理想의 역할을 알아 보는 것이 必須的이다. 먼저, 市街地 利用에 相關한 人間行爲의 主要素와 原動力을 概念的으로 알아 본다.

人間行態란 10個人이나 集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價値와 理想에 대하여 어떻게 處身하는가 하는 方法을 가르친다.

이러한 價値와 理想은 潛在的인 것이든 명백한 것이든 특유의 文化, 經濟, 物理的 狀況에 대한 經驗의 산물이며 生存과 生活과 같은 人間生活의 基本的인 追求위에 세워진 一種의 哲學體系를 構成하고 있다.

市街地利用 패턴을 市街地에 相關된 많은 個人이나 集團行動의 集合的인 產物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行動들을 人間의 必要와 慾求에 의해 자극받는 하나의 行態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社會的 慾望을 追求하는 데 있어 市街地 利用에 影響을 주는 人間行態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再開發地區에 相關된 個人이나 集團의 價値는 하나의 사이클 形態로 나타난다. 이 사이클에는 다음의 네 가지 要素가 있다 하겠다.

1. 必要와 慾求의 經驗
2. 목표의 설정
3. 행동에 대한 대안과 계획
4. 결정과 행동

첫째로 經濟的이고 社會的인 價値觀은 市街地利用 패턴을 變化시키기 위한 行動의 必要와 慾求의 經驗이며, 둘째로 이러한 必要와 慾求는 어떤 解決點을 향해 成形되어 간다. 예를 들면 市當局者라면 이 경우에 그곳을 再開發

地區로 指定하게 된다. 세째 이러한 目標을 追求함에 있어 地域計劃의 다양한 代案이 세워진다. 예를 들면 再開發手法中 既存 施設들의 全面撤去를 뜻하는 地區再開發이나, 혹은 部分的 改造를 뜻하는 地區修復이나에 따라서 그 可能性을 檢討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런 代案들의 檢討결과 얻어지는 한가지 計劃을 採擇하고 慾求에 도달하기 위한 行動에 들어 간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지막 結果는 市街地 利用 패턴의 變化이다. 이 變化는 새로운 價値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들 價値들은 장차 그 地域의 土地利用 패턴에 影響을 줄 一連의 새로운 行動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이같이 형성되는 몇개의 독립된 行態 사이클로 구성되는 個人이나 集團의 價値가 모이게 되면 그 都市 土地利用의 全體 패턴이 나타나는 結果가 된다.

都市의 土地發展에 대한 計劃이나 施行上의 統制나, 다른 計劃上의 調節에 대한 知識이 없는 狀態에서 發生하는 一連의 個人이나 集團의 行動을 볼 때 결과로 나타나는 土地利用 패턴은 相關이 있거나 또는 相關이 없는 수많은 行動에 의해 發展과 變化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行動들은 어떤 計劃된 또는 計劃되지 않은 結果를 갖게 된다. 이중에서도 計劃된 結果는 土地의 發展과 變化를 알고 있는 集團이 目的하는 結果를 豫見하고 意識적으로 誘導하는 方向으로 進行된다.

예를 들면 都市發展의 先導의 立場에 있는 市當局이 指定 놓은 再開發地區內의 住民들이 이것을 意識하고 그 方向으로 個個人이 土地開發과 建築行爲를 한다던지 혹은 組合를 構成하여 全面的인 再開發을 推進하는 것등이 이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都市生態學的 要因을 우리는 注視해야 한다. 各種 地方色이나, 收入階層이나, 社會的 地位등에 따라서 同質集團이 形成되고 分離되는 경향이 都市內에서 發見되며 여기에 對處하는 土地利用의 細分化和 多樣性을 認識하고 우리는 都市設計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論議가 따르나 여기서 餘白을 남기고 다음 項目으로 넘어 간다.

### 4. 經濟學的 側面

한마디로 말해서 土地利用度는 土地價格이 左右하고 있으며 그 逆도 眞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市街地 形成에 있어 地價에 비해 土地 利用도가 낮은 곳은 再開發의 要件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을 要約하면, 첫째 地價는 土地 利用 패턴을 결정하는 데 影響을 미치고, 둘째 地價는 土地利用도에 影響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地價란 課稅의 價値적정에 반해서 經濟價置라는 뜻에서 利用된다. 이것은 需要供給의 原則위에서 地價形成이 될 때이고 이런 狀態를 平衡理論의 狀態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두가지 地價와 土地利用과의 相互關係를 敷衍해보면 價値패턴이 變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利用패턴도 변하며 반대로 利用패턴이 變함에 따라 價値패턴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變化는 그 都市의 社會的, 經濟的 歷史 속에 매여져 있고, 기타 要因들에 관련되어 있어, 이런 變化는 複合要因과 뚜렷한 變移를 거부하는 效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地價變化와 관련된 人口移動이 이런 경우의 하나이다. 다음에 土地利用도와 地價의 관계는 土地利用도가 地價를 誘發시키게 되고, 또 利用도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的 要因은 利用도 자체를 결정하는데 포함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考慮를 요하는 복잡한 다른 要因들 즉, 社會的 要因, 公共利益相의 要因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複雜多岐한 要因들을 分析한다는 것은 아직도 研究되지 않은 分野에 屬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市街地形成도 經濟性 要因에 맞추어 左右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

이상에서 살핀 市街地 形成의 各種 側面은 우리들 都市 計劃家나 建築家로 하여금 當惑한 立場으로 몰아 넣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使命이 都市形成과 그의 上部構造인 建築物計劃에 있으니 만큼 이상의 여러 側面을 理解하기에 힘쓰는 한편, 이러한 知識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도록 努力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筆者의 著書〉

## 都市計劃

尹定燮 著

4 × 6 倍版 320 面 값 3,200원  
文運堂 · 發行

## 都市造景設計

Garett Eckbo 著  
尹定燮 訳  
菊倍版 280 面 값 4,500원  
東明社 發行

## 碑石의 名稱

